

아침세평

광주마을교육공동체의 '온마을이음학교'

김진구

광주시교육청시민협력처진흥팀장



새 학기가 시작돼 파릇한 봄기운과 함께 광주의 골목마다 새로운 교육의 활기가 돌고 있다. "온마을이음학교" 함께 성장하는 마을!"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비전이다. 학교 안에서의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들의 삶이 이뤄지는 터전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담장을 넘어 마을이라는 다양한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

'광주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 책상 위의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역사나 생태 환경을 생활 속에서 배워가는 것이다. 배움이 삶이 되고, 삶이 배움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마을교육공동체다.

이들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마을, 지자체, 교육청이 한 마음으로 묶여낸 협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고, 학교 교육을 삶과 연결하는 미래형 모델이기도 하다.

'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일차적인 책임이 가정에서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자라게 할 이차적인 책임은 마을과 지역사회에 있다. 급격한 지역소멸을 막고,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고 배워서 이곳에 정주(定住)하는 전

생애적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은 마을교육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완성된다.

첫째, 마을을 통한 교육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뤄지는 학습 형태이다.

둘째, 마을에 관한 교육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지역의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셋째, 마을을 위한 교육이다. 마을 구성으로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찾게 되고, 마을은 발전하게 된다.

광주는 교실이냐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광주라는 지역공동체에 정신적, 물질적 자산이 많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 전문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등 여러 분야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이 자산들이 학생들의 또다른 교과서가 되고, 활동하는 배움터가 되고, 선생님이 된다.

광주형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수는 '온마을이음학교'이다. 전국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광주의 모델은 민·관·학 거버넌스의 총출동 이음광으로 만들어졌다. 독자적이고 차별성이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마을교육 생태계이다.

시교육청과 시청, 시민협력진흥원과 5개 구청, 그리고 단위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잇는 협력체계가 만들어졌다.

특히 자치구별로 설치된 '이음센터'는 첨단과학, 의료 보건, 이주배경청소년 상생교육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활성화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광산구는 국립광주과학관과 연계한 '미래기술학교'로 AI·드론·창의 설계코딩 등을 운영하였으며, 동구는 조선대와 협력한 '미래대학'을 개설했다. 서구는 체험 중심 열린 교육을, 북구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빛고를 국민안전체험관·말바우시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남구는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 체험을 펼쳐왔다.

광주의 60여개의 마을학교는 단계별로 진화하고 있다. 지역의 여러 조건과 사업의 깊이, 기간 등에 따라 새내기마을학교→마을학교→온마을학교로 체계화돼 있다. 이는 공동체의 성숙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밑거름이다.

선생님들이 주도하는 마을교육실질과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직접 한다' 프로젝트는 활동 주체들의 자발성을 보여준다. 아이들이 피교육자에 머물지 않고,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시민으로서 당당히 참여한다.

이제 활기찬 봄기운이 학교와 온마을에 가득하다. 광주 학생들이 '타랑개 마을버스'를 타고 마을 곳곳을 누비며, 직접 개발한 마을 교재로 학습을 한다. 이러한 온마을이음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마을이 교실이 되고 시민이 스승이 되는 곳, 그곳에서 광주의 미래는 이미 자라고 있다.

기고

바다가 지켜낸 평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서해

이승민

광주지방보훈청 선임팀장



최근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고조와 국제 분쟁의 확산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운다. 평화는 결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평화는 스스로 유지되는 질서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와 힘, 그리고 공동체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인위적인 질서에 가깝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평온 역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바다는 이러한 국제 질서의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다. 바다는 세계를 연결하는 교역의 길이자 국가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다.

동시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긴장이 충돌하는 안보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오늘날 세계 교역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은 곧 경제의 안정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해양 질서에 깊이 의존하는 나라다. 자원과 내수 시장이 제한된 우리는 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산업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진 국가로,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이 해외 교역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일상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교역망 위에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바다는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전략 공간이 된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단지 영해를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경제와 국민의 삶,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

서해 역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전략적 해역이자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이 바다에서 실제로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우리는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을 기억한다.

이 세 사건으로 55명의 장병이 목숨을 바쳐 서해를 지켜냈다. 차가운 파도와 긴장 속에서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이러한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진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안보는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서해수호의 날은 단순한 추모의 날이 아니라 기억과 책임의 날이다.

서해를 지키 장병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청년들이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친구였으며,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거친 바다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잠시 서해를 떠올려 보자. 거친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나라를 지키 이들을 기억해 보자. 우리가 그 이름을 잊지 않는 한, 그들의 희생은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은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북한의 대표적인 서해도발을 상기하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하고 기념식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우리 고향 광주에서도 광주지방보훈청 주관으로 같은 날 연평도 포격전의 희생자인故 서정우 하사의 흉상이 있는 광주 문성중학교에서 자체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성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서정우 하사 흉상 참배, 아이들의 남긴 '기억의 파도' 참여형 추모행사 등 서해수호 55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오늘의 가치로 이어갈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보훈이 된다.

특히 미래세대가 이러한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다.

사설

광주·전남 지방선거 출속·깜깜이 우려된다

6·3지방선거가 두달여 남짓 남았지만 광주·전남 선거판은 '흔든' 그 자체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출제 불분명한 득표율 공방, 고발전만 펼치고 있다. 내달 3~5일까지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지는 본 경선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후보간 비방전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하는 결선투표도 내달 12~14일이면 끝나는 '민주당 경선 승리=당선'이라는 지역 특성상 지방선거는 이때 끝난다해도 무방하다. 초대 특별시장을 뽑는 선거가 채 20일도 안남았다는 얘기다. 지역민들은 후보들의 정책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도 마찬가지다. 후보들 간 합종연횡, 비방전 등으로 연일 시끄럽다. 시일이 촉박해서인지 자신의 정책보다는 상대방 헐뜯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경선 모두 흑색선전이 판치는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누가 되든 본선에서의 승리를 자신해 '큰 집집'이 아니면 그냥 넘어갈 태세다.

더 큰 문제는 가뜰이나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 경선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5일까지 끝마쳐야 할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에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심사에 착수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현행 23명에서 10명 정도 늘려야 하는 광주시의원 정수조정안도 여기에 상정돼 있어 지역 예비후보들은 '죽을 맛'이다. 선거구가 어디인지, 경쟁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깜깜이 경선'을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오는 7월이면 40년만에 분리된 광주·전남이 하나가 되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출범 초기 주정사 소재지 문제, 첨단산업·에너지·AI 등 성장동력 확보 등 할 일이 많은데 이를 이끌어 나갈 단체장·지방의원 경선은 출속·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이를 보완할 방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차량 5부제' 민간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유 자원 안보위기에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번호판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7은 수요일, 4, 8은 목요일, 5, 0은 금요일 등 일요일에 하루 승용차 운행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여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에는 승용차 5부제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 어긴 직원은 징계를 요청기로 한 것이다. 이별 경우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시행 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후부는 현재 '주'의 수준인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2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중동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공공기관과 대기업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책도 시행기로 했다.

사실 차량 부제는 197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집트·시리아와 이스라엘간의 중동전쟁이 벌어지면서 배럴당 3달러였던 국제유가가 12달러로 뛰는 등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긴급에너지절약책으로 일일제한을 한 택시는 무조건 쉬게 하는 '택시 부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1991년에도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과 이라크 간의 걸프전이 발발하자 정부는 민간 차량까지 포함해 전국 단위 10부제를 약 2개월간 시행했다.

이처럼 차량 부제는 중동 정세 등으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질 때, 연료 소비를 미리 낮추기 위해 마련된 대응책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상징성은 크지만 실효성은 낮은 '교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효과를 본다는 얘기다.

취재수첩

네거티브보다 설득력 있는 비전 제시를

이산하 정치부장



6·3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의 선거 열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가리지 않고 후보자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출제 불분명한 득표율 문건이 퍼진 것을 발단으로

고발전 양상으로 흘러가며 갈등이 극에 달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예비경선 득표율과 후보별 순위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최근 후보자 6명의 개별 득표율이 표기된 불법 문건이 누출되며 후보들 사이의 공방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건이 허위라는 것을 공식 확인. 한 후보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며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눈속임용 그래픽'이 문제로 떠올랐다.

해당 카드뉴스는 하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출처를 명기했으나 '압도적 지지' '예비경선 통과,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바로 옆에 노출되면서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줬다는 지적을 받으며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전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40년 만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정책 경쟁을 하기보다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행정체계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 산업 구조 재편 등 여러 과제가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초대 단체장이 어떤 구상을 내놓느냐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발전 방향과 지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다.

그 험난한 길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진 경쟁이 아닌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총장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 치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신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팩스 (062) 385-5400	문 화 제 목 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민 집 부 370-7082	독 자 관 리 국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사 진 부 370-7050	서울 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